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내달 5일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 주관하여 '99. 10. 5~10. 8(4일간) 서울무역전시관(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개최되는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의 참가신청으로 제2전시장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행사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20여개 업체(300부스)에서 신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기진흥회에서는 이 기간중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대기업 종합상사 및 해외바이어(일본 전력회사 및 동남아·이집트 전력기관 구매담당)를 초청,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체와의 교류창구를 위한 상담실을 별도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우리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0일에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무역전시관 회의실에서 전시회 일정 및 주의사항 등 전시회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8월 31일에는 진흥회 회의실에서 산자부, 한전, 대기업 종합상사(현대, 코오롱, 쌍용 등)와 중소기업체와의 교류를 위한 상담실 운영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이번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한 준비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전시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전으로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업 수출유공자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3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99 전기공업 수출유공자 포상심사위원회(위원장 : 공창덕 상근부회장)를 개최하여 포상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금번 심사위원회는 전기공업의 신제품 기술개발의 육고취와 국산화 촉진 및 품질수준 제고, 전기공업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공

이 큰 업계 및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각 3명, 전기진흥회장 표창 5명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정부에 포상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선정자에 대한 시상상은 내달 5일 개최되는 '99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막식 행사에 거행될 예정이다.

'99. 3차 산업기술개발자금(시제품개발 전기부문)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산업기술개발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개발자금(시제품개발 전기부문) 용자신청업체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99. 3차 동 자금 용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산업자원부의 사업자확정을 거쳐 시중은행을 통한 용자를 받아 해당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서 진흥회에서는 '99년도 전기부문 배정금액(100억원)을 3차례에 걸쳐 심의후 15개 업체에 전액 지원하였다.

'99. 3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용자대상사업자

(시제품개발 전기부문)

접수번호	업 체 명	과제명(사업기간)	대표자	총소요 금 액	지원 금액
993-03	대원전선(주)	광섬유 케이블 ('99. 8~2000. 7)	서명환	3,279	2,123
993-04	(주)현영콘트롤	원격 무인화제어가 가능한 공조설비 제어용 콘트롤러 개발('99. 7~2000. 6)	최현관	296	227
993-05	산일전기(주)	MOLD TYPE 기동용 리액터 개발 ('99. 10~2001. 9)	박동석	411	329
-	3업체	3과제	-	3,986	2,679

♣ 산업현장 新지식인 선정을 축하합니다 ♣

남다른 노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21명의 산업역

군이 新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2일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新지식인 발굴'의 일환으로 21명의 산업역군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중 본회 회원사소속 선정자 및 선정내용을 소개한다.

▶ 금호산업(주) 제조기술과 김용현

- TBD 드럼 스페이서 링 개선을 통해 7억 4600만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왔다. 성형기 진원도 점검방법 개선으로 2억89000만원의 절감효과도 이뤄냈다. 이는 성형시 자와 턴 업 플라이 끝간 거리를 점검, 편차를 확인하고 문제가 될 경우 미리 교체자에 의해 진원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김용현씨는 지난 '95년부터 3년연속 사내 제안왕에 선발됐으며 지난 '97년과 지난해에는 전국 제안왕에 선정됐다.

▶ 현대중공업(주) 조선품질경영부 서영준

- 한국적 문화와 특성에 맞는 현대중공업형 두레활동을 창안, 평균 50% 수준이었던 활동완료율을 98%대까지 향상시켰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품앗이의 상부상조

에서 더 나아가 단위조직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살리면서 민주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드높이는 한국형 관리제도, 하부 구조물과 상부 구조물을 동시 작업함으로써 블록단위 기존공법 대비 수퍼 리프트 공법을 통해 61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 현대중공업(주) 해양품질경영부 손익철

- CO₂ 용접공법 개선으로 공기단축은 물론 원가절감, NDT 검사합격을 100% 성공시켰다. 용접 포지션 6G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해상 토목공사에 지그를 개발함으로써 연 1억2397만원 절감효과를 냈다. 다양한 제안활동을 통해 인력 및 원가절감을 이뤄냈다.

▶ LG산전(주) 청주공장 최규간

- 협력업체지원팀으로 선발, 15개 협력업체의 공정을 혁신시키고 품질 안정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후 올해 초 가공실에 돌아와 품질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품질 점검 시스템을 가동했다. 전 부품중 손실비용이 가장 많은 자동차단기를 분석, 가동률 69%, 불량률 3.8%였던 것을 가동률 93%까지 끌어올렸다.